

## 교회소식

- 대심방 중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김동수 집사님과 서영수 집사님의 세광교회 시무장으로 선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로임직식은 3월31일(주) 오후 6시입니다.
- 담임목사는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Spruce Lake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변명균 집사 (시 63)  
**이번 주 친교:** 황혜영 집사, 홍영순 집사  
**다음 주 친교:** 구자금 목사, 신미라 권사

##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러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10호

2019년 3월 17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에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b>Pastor Edwin Kim</b>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b>Colossians 3:5-17</b> ----- Pastor Kim
Sermon -----	“ <b>Do (to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b> ”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One Voice”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b>이민영 목사</b>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함께
Hymn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대표기도 -----	시편 27 ----- 박창규 집사
Prayer	Psalms 27
찬양 -----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16 ----- 인도자
Word of God	Psalms 16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 <b>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b> ”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246장(통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 다함께
Hymn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 지난 주 주일 말씀

#### 어둠 속에 남은 거룩한 씨 이사야 6:1-13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찬란하고 만군의 여호와와 여전히 왕이십니다. 듣지 않는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 가운데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 사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차라리 마음을 달아버려 심판을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배척한 결과는 가볍지 않아서 도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옮겨져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묻는 이사야에게 숲의 나무가 심분의 일이 남는 것도 모자라 모두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간 폐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루터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드러난 곳에 십자가 구속과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고후 12:9). 본문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웃시야 왕은 죽은 해에 하나님이 왕 되심이 드러납니다. 죽었다 했는데 죄 사함을 받았고, 입술이 부정했는데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짜 빛들이 꺼질 때 진짜 빛이 나타납니다. 약합니까? 힘이 다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만 찾을 때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때입니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둠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당하는 심판을 당연한 일로, 의로운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배임을 당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배임을 당할 백성 대신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우리로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루터기는 그저 죽은 그루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사 11:1),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던 그 싹(사 53:2)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인해 죽은 그루터기 같은 우리가 살았습니다. 쓸모 없던 인생이 쓰임을 받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 광명을, 듣지 못하던 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성공은 덧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능력 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따르는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죽은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만드는 하늘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Memo